

키케로의 수사학 교본 *Partitiones oratoriae* 연구

양태중(동아대)

1. 연구의 필요성

최근의 “수사학 붐”을 보면, 수사학에 대한 다양한 학문들의 관심을 읽어낼 수 있다.¹⁾ 문학은 물론이고 법, 정치, 사회, 커뮤니케이션, 문화 등에서 쏟아내는 이런 관심의 근저에는 말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깔려 있다. 마음의 변화로 촉발되는 태도나 행동의 변화 등은 결국 말과 사람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마저 수사학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21세기 초에 독일어권의 수사학 연구에 나타난 인류학적 전환”(P. L. Oesterreich 2002: 37)이다. 이 전환의 중심에서 있는 인물이 철학자 블루멘베르크인데, 그는 “진리소유의 가능성에서 출발하여 진리의 전달을 미화하는 기능, 진리를 명백하면서도 인상이 깊게 만드는 기능, 간단히 말해서, 진리를 사안에 맞게 다루는 기능을 화술에 부여”하는 키케로의 수사학을 “우리의 전통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수사학”으로 보고 있다(H. Blumenberg 1986: 104 이하). 고대에서 수사학 자체의 이름으로 통했던 인물, 르네상스 시대에 학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 현대에 와서도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다시금 그의 수사학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키케로(M. T. Cicero, 기원전 106 - 43년)는 수사학의 고대사에서 누구보다 많은 글을 남겼다. 수많은 연설문은 접어두고, 수사학에 관한 글들만 하더라도 처녀작 *De inventione*, 대표작 *De oratore*를 비롯하여 *Brutus*, *Orator*, *Topica*, *Partitiones oratoriae* 등을 열거할 수 있다. 그의 저술시기를 연구한 학자들은 처녀작이 나온 기원전 80년경을 초기로 보고, 대표작이 나온 시기를 중기로 보며(기원전 55년부터 51년까지), 그 외의 저술이 나온 기원전 46년부터를 후기로 본다. 이 중에서 처녀작은 키케로 자신으로부터 오류가 많다는 지적을

1) 그 일면에 대해서는 양태중 2004c 참고.

받고 있어서 그의 수사학의 면모를 알아보기에 적절하지 않고, 로마 화술의 역사를 다룬 *Brutus*, 문체를 중점적으로 다룬 *Orator*, 논증을 다룬 *Topica* 등도 수사학에 관한 특정 부분만을 다루고 있어서 전체를 일별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그의 수사학 전체를 알아보는 데에는 *De oratore*와 *Partitiones oratoriae*가 적격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전자가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전자의 연구가 필수적이지만,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후자를 키케로 수사학의 이해를 위한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첫째는 서술의 간결성이다. 전자는 3권 862절로 이루어졌지만,²⁾ 후자는 140절로 이루어졌다. 전자와 비교할 때, 후자는 전자의 한 권의 분량도 못된다. 그 까닭은 키케로가 유학을 떠나는 아들에게 수사학의 기본적인 사항들만을 문답을 통하여 전하려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근원으로 가는 이정표”(140절)를 제시하려 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저술시기의 역사성이다. 후자는 전자보다 10여년 뒤에 저술되었다. 이는 단순히 출간의 순서와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다. 10여년 뒤의 그는 대표작을 통해 밝힌 이론과 이를 실제에 응용하면서 다듬은 이론을 이제 최종적으로 손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보다 성숙한 키케로의 생각을 요약해서 읽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한 교본의 구성과 내용을 검토하는 작업은 서양의 전통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수사학의 이론적 토대를 일별하는 기회가 된다.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의 이론의 참신성을 확인하는 한편, 비판적으로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교본의 제목과 구조

2.1. 교본의 제목

우리가 연구대상으로 삼은 교본은 이름이 둘이다. 하나는 *De partitione*

2) 3권으로 엮인 대표작의 1권은 265절, 2권은 367절, 3권은 230절로 이루어졌다.

*oratoria*이고, 하나는 *Partitiones oratoriae*이다. 랙햄(H. Rackham)은 전자를 *Classification of Oratory*라는 이름으로 번역하였고, 칼 바이어와 게르투르트 바이어(Karl und Gertrud Bayer)는 후자를 *Rhetorik in Frage und Antwort*라는 이름으로 번역해내었다. “화술의 분류”와 “문답 수사학”이란 이름으로 옮길 수 있는 두 번역본의 제목에서 우리는 일단 직역과 의역의 문제를 끌어낼 수 있다. 영역본은 될 수 있는 대로 직역하려 하고 있고, 독역본은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가 대답하고 있는 교본의 형식적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랙햄의 번역은 교본의 제목에서 “De”를 생략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직역이 아니다.³⁾ 그가 서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생략되지 않은 전자는 “Of the Classification of Rhetoric”으로, 생략된 후자는 “The Divisions of Oratory”로도 번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다. 랙햄이 전자를 번역하면서도 “수사학” 대신 “화술”이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사학이 “이론 수사학 *rhetorica docens*”과 “실제 수사학 *rhetorica utens*”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키케로의 “말하는 방법”(1절)으로서의 수사학은 화술에 대한 규칙 또는 규범 수사학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서, 우리말 번역본은 『화술의 법칙』이란 이름을 달고 있다.

2.2. 교본의 구조

총 140절로 구성된 교본은 아버지와 아들이 “말하는 방법”을 두고,⁴⁾ 대화의 진행방식에 합의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1-2절). 이어서 “화술 이론 전체”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각 구성성분은 또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문답이 나오고(3-4절), 이를 토대로 각 구성성분에 대한 규범적인 설

3) 이러한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수사학』의 영역본에도 적용된다. 케네디(G. A. Kennedy)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19.2)에서 이 책을 언급할 때는 “*Peri rhetorikes*”라고 했으며, 다른 학자들과는 달리 “De”와 같은 의미의 희랍어 “Peri”를 영역의 제목에서 생략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의 역서는 *Rhetoric*이 아니라, *On Rhetoric*이란 이름을 달고 있다.

4) 이것은 ‘*ratione dicendi*’의 직역이며, 영역본에서는 “theory of rhetoric”, 독역본에서는 “Redekunst”라고 하고 있다.

명이 구체적으로 나온다(5-138절). 설명이 끝난 다음 아버지는 이러한 “체계”의 출처와 가치를 강조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엄청난 선물”에 기뻐한다. 이로써 전체의 대화가 끝나고 있다(139-140절). 즉, 교본은 대화의 시작, 대화의 대강, 대화의 핵심, 대화의 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곧 보게 될 연설의 4분 구조와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키케로가 연설의 구조를 교본의 구조에 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연설의 구조를 다른 종류의 텍스트에도 응용될 수 있는 구조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4분 구조에서 필수적인 부분은 가운데 두 부분, 즉, 교본의 구조에서의 대화의 대강과 핵심이다. 이 필수적인 부분이 “화술이론”의 체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음 장부터는 이 부분에 주목하여 키케로의 수사학의 요체를 살펴보기로 한다.

3. 화술이론의 체계

3.1. 화술이론의 구성

교본의 3-4절의 “화술이론”의 개괄적 구성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 화술이론의 구성

화술 이론	웅변가의 능력 (5-26절)	착상력
		배열력
		표현력
		발표력
		기억력
	연설 (27-60절)	들머리
		얼거리
		벼리
		마무리
	문제 (61-138절)	일반 문제
		특수 문제

<표 1>에서 보듯이, 화술이론은 “웅변가의 능력”, “연설”,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성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다음 장으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화술이론이 왜 이 세 가지로 구성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이론체계를 구성할 때에는 통합적 관점을 따르거나 분화적 관점을 따를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고대 수사학의 체계를 현대에 와서 재조명한 두 저서에 잘 나타나고 있다. 라우스베르크의 『문학수사학 편람』(H. Lausberg 1973)은 통합적 관점을 따르고, 위딩과 슈타인브링크의 『수사학 개요』(G. Ueding/B. Steinbrink 1986)는 분화적 관점을 따르고 있다. 전자는 “연설”을 “웅변가의 능력” 중 “착상력”에 포함시키고 있고, 후자는 착상력의 일부인 “말터”와 표현력의 일부인 “장식성”을 독립시키는 한편, 연설의 “효과”는 물론 습득과정 중의 일부인 “연습”도 추가하고 있다. 후자의 관점은 체계자체를 기술한다기보다 책 전체를 “역사적인 부분”과 “체계적인 부분”으로 나누다 보니, 체계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효과목표와 습득과정을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말터”와 “장식성”의 독립은 체계 자체를 흔들고 있다. 물론 이 독립의 정당성은 체계를 구성하는 성분들의 중심요소를 강조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성분들이 착상력과 표현력이고, 두 성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각각 말터와 장식성이기 때문이다.

키케로도 웅변가의 능력이 “생각과 말 *res et verba*”을 올바르게 다루는 데 그 본질이 있다고 강조한다(3절).

하지만 생각과 말은 일단 착상해서 배열해야 해. 전문용어를 빌어 말한다면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착상력이라 하고, 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표현력이라 하지. 배열력은 두 영역에 공통적이지만 착상력에 넣고들 있어. 목소리, 몸짓, 표정 그리고 발표력의 모든 종류는 표현력에 속하며,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기억력은 참고란다.

키케로의 사고 과정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2> 웅변가의 능력의 분화

웅변가의 능력	생각	착상력	착상력	기억력
			배열력	
	말	표현력	표현력	
			발표력	

이것은 연설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화술 이론을 설명하는 것과는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 연설은 착상-배열-표현-암기-발표의 순서를 거쳐 생산된다. 즉, 논거를 찾아내고, 찾아낸 논거를 정리하고, 정리된 논거에 언어의 옷을 입히고, 옷을 입은 논거를 외워서 기억하고, 기억한 논거를 목소리와 몸짓과 표정에 맞춰 드러냄으로써 마침내 연설이 생산된다. 이때의 배열은 착상과 표현 사이에 있어서, 두 영역에 공통적일 수 있다. 그런데, 키케로의 사고과정에서는 배열력이 착상력에 종속되고 있으니 공통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차이점이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기억력의 위치이다. 생산과정에서는 암기라는 이름으로 발표의 단계 앞에 나오고 있지만, 키케로의 사고과정에서는 특정 단계로서가 아니라 “창고”로서, 연설의 생산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억력에 대한 설명은 교본에서 단 하나의 절, 26절에만 나온다. 그것도 기억력이 “장소”와 “그림”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짤막한 설명이다. 이를 더 큰 뜻의 착상력과 표현력의 “창고”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키케로의 대표작을 다시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기억력은 “그림에서 생각을, 장소에서 배열”을 포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De oratore* 2. 360) 착상력의 창고요, “각 기관의 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고 새겨진 것을 우리는 가장 명백하게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De oratore* 2. 357) 표현력의 창고인 것이다. 물론 생산과정에서도 “암기”의 위치로 말미암아 다른 과정들 모두에 연관된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다.

기억력의 특별 취급은 또 다른 면에서도 이해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그가 기억력을 “천부적 능력”(*De oratore* 2. 356)으로 본다는 점이다. 천부적 능력에 대해서는 이론의 체계를 세울 수 없다. 이론의 체계가 아닌 것은 학습대상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키케로는 기억력도 장소와 그림의 규칙을 이용하여

길러질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즉, 기억력을 자연적 능력으로서만이 아니라 인위적 능력 또는 후천적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화술 이론의 체계에 받아들이고 있다. 둘째는 키케로가 발표과정에서 해야 할 일도 기억력을 통하여 떠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과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암기의 대상은 표현된 것뿐이다. 그러나 실제 연설에서는 목소리나 표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미리 구상하고, 이를 떠올려 발표하게 된다. 이러한 구상이 곧 착상력이고 보면, 착상력은 발표에까지 그 영향력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생각을 구체적으로, 대조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법을 써야 한다고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에, 착상력은 표현력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럴 경우의 표현력은 그 생각을 언어로 드러내는 작업에 한정되게 된다. 같은 사고과정이 “연설”, 즉 연설의 구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각 구조에서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냐가 구상되기 때문이다. 라우스베르크가 “연설”을 착상력의 범주에 넣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배열력에는 논거의 배열만이 남게 되는데, 키케로는 실제로 이런 의미에서 배열력을 파악하고 있다. 그에게 기대면, “식장연설”의 논거배열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또는 그 역으로, 또는 서로를 혼합해서 순서를 잡는 것이다(12절). 그러므로 기억력의 이탈은 결국 구상해야 될 범위를, 즉 착상력 범위를 확장시키는 한편, 통합적 사고의 출발점도 된다.

통합적 사고를 더욱 확장시키면, “문제”도 착상력의 일부가 될 수 있다. 키케로가 이것을 따로 둔 것은 일부에서의 경향처럼 이것을 “인식 *intellectio*”의 단계로 생각했기 때문이지 싶다. 말을 바꾸면, “문제”는 가공의 단계를 거쳐야 할 연설의 재료이고, 연설을 하려는 사람은 이 재료에서 소재를 인식하고 재재를 인식하고 주제를 인식해야 한다. 즉, “문제”는 가공과정 이전의 단계인 것이다. 그래서 이를 인식 단계로 보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생산의 공정에 들어와야 할 재료이지, 공정 밖에 있고서는 연설과 무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합적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마저 착상력에 포함시켜버린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웅변가의 능력이 곧 화술 이론이 된다.

3.2. “웅변가의 능력”

3.2.1. “웅변가”

“웅변가의 능력 *vis oratoris*”은 수사학의 체계를 구성하는 다섯 성분들에 펼쳐져 있다. 이것은 수사학과 웅변가의 관계를 암시한다. 사실, 키케로에게 “웅변가 *Orator*”는 수사학을 지칭하는 또 하나의 이름이다. “그렇게나 중요한 칭호는 말로 전개될 수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나 내용을 잘 알고, 잘 구성하고, 멋지게 장식하고, 기억해내서, 그리고 발표의 품위에 맞춰서 말할 수 있는 연설가에게 할당된다.”⁵⁾ 교본에 나타난 다섯 가지 능력은 기억력과 발표력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 수사학의 체계를 구성하는 성분들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웅변가는 이 성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연설가, 또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난다. 수사학이 의인화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그 하나의 이유는 키케로의 “활동 *occupatio*”에서 찾을 수 있다. 그에게는 희랍의 철학자들이 바라는 “방해받지 않는 여유”(De oratore 3. 64)가 없었다. 여유를 가진 사람들은 이론가요 교사이지 활동가가 아니었다. 그래서 키케로는 희랍의 “수사교사” 또는 “수사 이론가”를 로마의 “웅변가”와 대립시킨다. 웅변가는 활동하는 수사가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수사학을 웅변가와 동일시하는 경향은 “수사학 이론으로부터 말쑥씨에 대한 실제적 요구로의 중심 이동”이었던 것이다(S. Schweinfurth-Walla 1986: 99). 이때의 웅변가가 이상적인 형태의 화술 자체였다는 것은, 플라톤의 이데아를 모범으로 삼아 추상화 작업을 벌인 키케로의 다음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내가 찾는 것은 정말이지 단순히 말쑥씨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죽지도 않는 것이요, 허황된 것도 아니다 - 아니지, 그것은 소유하는 사람들

5) De oratore 1.64. 이 대표작의 독역자 H. Merklin은 ‘vis’를 “das Wesen”으로, 말하는 방법에 나타난 ‘ornate’를 “wirkungsvoll”로 옮기고 있다. 전자는 일단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도, 4.2.2.에서 보게 될 내용으로 보아도 ‘능력’으로 고치는 것이 옳다. 후자는 표현력의 본질을 지칭한 것이기 때문에, 또 문체원칙 중에서 장식성을 뜻하는 ‘ornatus’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는 독역자의 번역을 버리고 “멋지게 장식하고”로 고쳐보았다.

마침내 웅변가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정신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화술 자체인 것이다(Orator 101).

3.2.2. 다섯 가지 능력

5-26절에서 밝혀지고 있는 웅변가의 능력을 추려,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웅변가의 능력

웅 변 가 의 능 력	착상력 (5-8절)	신뢰 얻기	외부 말터	신의 증언, 인간의 증언		
			내부 말터	정의, 원인, 분류, 과정, 비교		
		감정 자극	("연설"과 "문제"에서 다루기로 함)			
	배열력 (9-15절)	일반 문제	내부 말터의 순서를 따름			
			특수 문제	식장연설	다양한 배열 방식	
		정치연설		벼리와 마무리에 중점		
		법정연설		원고	발생순서, 상세 설명, 법관의 분노	
			피고	법관의 호감, 원고주장의 축소와 생략, 법관의 동정		
	표현력 (16-24절)	보통의 방식	재료	홀말	고유어, 조어	
				접말	리듬, 일치	
			원칙	명확성, 간결성, 신빙성, 구체성, 매력성		
		새로운 방식	재료	홀말	생각의 확대와 축소	
				접말	순서의 변화	
	발표력 (25절)	(일치)	목소리, 몸짓, 표정			
	기억력 (26절)	(새김)	장소, 그림			

이 표를 보면, 착상력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각종 “말터 locus”에서 “그럴듯한 생각”, 즉, “논거 argumentum”을 찾아내는 것이다.⁶⁾ 그는 모든 것을 말터로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아리스

토텔레스가 “비기교적 증명”과 “기교적 증명”이라 했던 것도 여기서는 차례로 “외부 말터”와 “내부 말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수용은 단지 명칭을 바꾸는 문제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존의 “인간의 증언”에 한정 되었던 “외부 말터”의 대상을 “신의 증언”으로까지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내부 말터에서는 대상의 정의, 대립, 유사성, 일치성, 연관성, 원인, 결과, 분류, 하위분류, 과정, 비교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기억하기 좋게 그 수를 줄인다면 위의 표와 같을 것이다.⁶⁾

<표 3>에서의 배열력은 “문제”와 관련하여 기술되고 있다. 이것은 화술이론의 구성에서 말했다시피, “문제”의 영역을 웅변가의 능력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즉, 통합적 관점으로 화술이론의 체계를 기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것은 감정의 자극이라는 착상력의 요소가 배열력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착상과 배열의 접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감정자극이 특수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만 나오고 있다. 이미 착상력에서도 그러기로 하고 미뤘던 것이지만, 이로 미루어 착상력은 주로 일반 문제에 관련된다고도 할 수 있겠다.

표현력에서는 보통의 표현방식과 새로운 표현방식이 나뉘지고, 이 방식이 표현의 재료인 낱말에 있음에 키케로는 주목한다. 그래서 그는 흘말은 찾아내야 하고 겹말은 배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6절). 즉, 일부 낱말은 선택되어야 하고, 일부 낱말은 다른 낱말들과 함께 결합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럴 경우의 통상적인 표현방식에서는 고유어와 조어 등의 낱말이 선택되어야 하고, 낱말들의 결합에서는 리듬과 일치에 신경을 쓴 낱말들을 배열해야 하는 것이다. 키케로는 이어서 흘말과 겹말에 적용되어야 다섯 가지의 “찬란한 불

-
- 6) ‘말터’는 한 마디로 논거가 숨어있는 곳이다. 논거의 은신처인 것이다. 이를 말터로 번역한 까닭은, 그것이 ‘곳’이든 ‘은신처’이든 장소를 뜻하며, 논거도 결국에는 말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특정 문장을 두고도 논거라 하기 때문이다. 각종 말터에서 찾아낸 논거가 문학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예에 대해서는 양태중 2002: 172-187 참고.
- 7) 원인 앞까지의 말터들은 대상의 변별력을 보이는 것이므로 대상의 정의로 묶일 수 있겠고, 원인과 결과는 원인으로, 분류와 하위분류는 분류로 묶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내부말터의 구체적인 용례에 대해서 키케로는 또 하나의 저서를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Topica*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태중 1996 참고.

빛들”(19절)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표현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 이른바 문체원칙을 가리키고 있다.⁸⁾ 희랍 수사학의 전통에 따르면, 문체원칙은 정확성, 명확성, 적절성, 장식성의 네 가지이다. 그랬을 때, 재료에 나타난 홀말의 고유어와 조어, 접말의 리듬과 일치하는 정확성 원칙과 연결되고, “찬란한 불빛들” 중의 간결성은 전통의 명확성과,⁹⁾ 신빙성은 적절성과, 구체성과 매력성은 장식성과 연관된다. 따라서 키케로는 이를 통하여 희랍의 문체원칙을 분화하고 있는 셈인데, 특히 구체성은 현대에 와서도 문체원칙의 하나로 대접받고 있다.¹⁰⁾ 또한 새로운 표현방식은 재료의 변형을 말하고 있다. 그것이 생각의 확대나 축소, 순서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음은 차례로 첨가, 삭제, 치환의 변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여기에 대체의 변형만 추가된다면, 고대수사학을 완성한 퀸틸리아누스의 “4대 변화범주”(M. F. Quintilianus 1988: 75)와 맞물리게 된다.¹¹⁾ 그런데, 키케로의 “조어”에는 단순히 낱말의 합성뿐만 아니라 유추나 모방 등에 의한 새로운 낱말들도 포함되어 있다(16절 이하). 즉, 은유, 환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대체의 변형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키케로는 표현력을 설명하면서 표현법들, 이른바 문체범주를 앞세우고, 문체원칙을 곁들여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후대로 오면서 순서가 바뀌어, 문체원칙을 앞세운 뒤에 그에 따른 문체범주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본 라우스베르크의 저작이 그러하고, 위딩과 슈타인브링크의 저서도 그러하다. 특히 후자의 저서에서는 이들 문체원칙 중에서도 장식성을 특히 중요시한 결과를 담아내고 있다.

발표력과 기억력은 각각 1절로 설명되고 있고, 이미 화술 이론의 구성에서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웅변가의 능력의 구성성분이라는 점만 제시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8) 문체원칙에 대해서는 양태중 1998 참고.

9)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키케로 자신도 19절에서 언급하고 있다.

10) 플랫폼의 경우가 그러하다. 『수사학과 텍스트 분석』, 66쪽 이하 참고.

11) 현대의 “언어조작 *linguistische Operationen*”과 거의 일치하는 이 범주를 이용하여, 각종 표현법들인 문체범주가 분류된다. 보다 자세한 것은 양태중 2003 참고.

3.3. “연설”

키케로는 “연설”을 <표 4>과 같은 내용을 담은 4분 구조로 보고 있다.

<표 4> 연설의 구조

연설 (27-60절)	들머리 (28-30절)	감정 자극	호감 사기, 이해 돕기, 관심 끌기				
	얼거리 (31-44절)	사안 설명	필수	명확성, 신빙성			
			소품	매력성			
		신뢰 연기	추정	개연성, 사안의 특성			
			정의	종류, 특성, 공통점, 대립			
	벼리 (45-51절)	신뢰 연기	직접	전제-지지논거-결론			
			간접	필요한 것의 증명-전제			
			기타	문제제기, 자문, 명령, 소원			
	마무리 (52-60절)	감정 자극	부풀 리기	표현	홀말	신조어, 은유 등	
					겹말	거듭법, 점층법 등	
				사고	신뢰	신뢰 연기의 말터	
					감정	식장연설	긴장, 감탄
			정치연설	장단점			
요약			식장연설	불필요			
			정치연설	드물게 사용			
			법정연설	원고	필요, 중점		
	피고	불필요					

이 표를 보면, 우선 4분 구조의 시작과 끝은 감정을 자극하고, 그 사이에서는 신뢰를 얻는 구조로 되어있다. 즉, 겉은 감성이요, 속은 이성인 것이다. 이성의 상품을 감성으로 포장하는 격이다. 수사학이 진리의 전달을 미화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하는 것도 이 구조에서 알 수 있다. 이 4분 구조는 서론-본론-결론이라는 고착화된 형식에서 본론을 “얼거리”와 “벼리”로 나눈 것이다. 만

약 시작과 끝을 서론과 결론이라 한다면, 이 고착된 용어로 말미암아 본론이라는 한 부분만을 떠올리지, 위에서 보는 것처럼 두 부분을 떠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여기서는 각 부분의 명칭을 바꿔 불러 보았다.

연설을 구성하는 성분들 중에서는 놀랍게도 얼거리가 다른 설명보다 많다. 그중에서도 “사안 설명”은 31-32절까지이고 보면, 얼거리의 초점은 “신뢰 얻기”에 맞춰지고 있다. 그 내용은 추정-정의-속성으로 다음의 “문제”의 절에서 보게 될 내용이다. 이것은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문제”의 영역이 화술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키케로는 또 마무리에 나오는 “부풀리기 *amplificatio*”가 연설의 다른 부분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어떤 정황이 입증되었거나 반박되었을 경우에는 주제를 벗어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연설 도중에도 부풀리기가 나올 수 있단다. 따라서 부풀리기는 감정을 돋우어, 신뢰성을 얻는 데 도움을 주는 진술형식을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52절 이하).

부풀리기가 연설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하나는 부풀리기의 사용 순서이다. 정황이 입증되거나 반박된 다음에 부풀리기가 나와야 한다는 것은 청중의 이성적 판단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부풀리기의 기능이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적 판단을 굳히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¹²⁾ 즉, 그는 이성이 감성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을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성의 상대적 우위는 착상력의 순서에서도 이미 암시되고 있었다.

3.4. “문제”

교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제”의 설명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12) 그래서 그는 부풀리기를 “격정적 증명”으로도 보고 있다(27절).

<표 5> “문제”의 내용

문제	일반 문제 (61- 68절)	이론 지향	추정	가능성, 발생원인					
			정의	동일성, 특성					
			속성	예의, 유용성, 형평성(의 비교형식)					
		효과 지향	회피	의무론과 감정조절					
			이득	의무론과 감정조절					
	특수 문제 (68- 138절)	식장 연설 (69- 83절)	표현	홀말	신조어, 고어, 은유				
				접말	대조법, 거듭법, 마침법				
			사고	칭찬	선	가문, 미모 등			
					미덕	지식	지혜(분별력, 지능)		
						행동	자제(단념, 인내)		
		명예	(미덕의 감시자)						
		비난	(미덕과 비슷해 보이는 악덕)						
		정치 연설 (83- 97절)	표현	간단하고 인상적이게, (풍부한 내용)					
			사고	권유	유익함	교양인	칭찬, 예의		
					비교양인	수입, 쾌락			
		수행 가능성	시간, 장소, 상대, 수단 등의 고려 및 비교						
		제지	권유의 말터 중 하나를 반박						
		법정 연설 (98- 138절)	표현	?					
			사고	논증	절차	청구의 권한, 시효 등(소송 전)			
						추정	원고	동기	유익함, 수행가능성, 감정
결과	물증, 증인, 간접증거								
피고	동기 부인, 결과 반박								
정의	원고			날말의 의미,					
	피고			법률의 취지					
속성	원고			형평성	진실과 정의				
	피고		응보(감사, 처벌)						
해석	의미		문리 해석						
	취지	연혁 해석							
	모순	규범 조화적 해석							

<표 5>의 구성을 보면, 키케로가 “문제”의 1차적 분류에서는 “일반 문제”에 더 비중을 두고 있고, 그 중에서도 “법정연설”에 특히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일단 형식적인 면에서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점에 주목하기로 하자. “문제”의 1차적 분류는 기원전 2세기에 활동했던 헤르마고라스(Hermagoras)의 생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는 “특수 문제”를 다루는 연설 이외에도 일반 문제를 다루는 “강연”을 더 설정하여, “공공 문제”의 폭을 넓히고 있다.¹³⁾ 키케로는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강연”이 연설의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반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특수 문제의 일부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일반문제는 특수문제에 포함되어 있고, 결국 여기로 모든 것이 환원될 수 있기 때문이지(61절).

무엇이 형평에 맞는지를 원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일반 문제의 범주에 속하고, 그 어떤 하나의 경우를 들어 그것이 그 원론적 의미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특수 문제에 속한다. 그래서 특수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일반 문제가 규범이나 전제로 나오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국토를 침철하거나 국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수괴” 감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은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라는 형법 제87조 1항을 들어 형량을 선고하게 된다. 일반 문제인 형법이 여기서 특수 문제인 법 적용의 판단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법이 곧 규범이자, 그 적용에 있어서는 대전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결국 특수 문제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수 문제 중에서도 특히 법정연설을 중점적으로 다룬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물음에 답하기 이전에 어떻게 “특수 문제”가 연설의 유형과 일치하게 되는지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그에게는 문제가 단순한 재료가 아니고, 주제이기도 했다. 더구나 그는 주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주제를 이용하여 어떻게 연설을 만들어낼까에 더 비중을 두다 보니, “문제”의 분

13) “강연”이라는 명칭의 사용과 헤르마고라스의 이론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것은 양태중 2004a: 11 이하 참고.

류를 연설의 유형으로 나타나게 했던 것이다.

이제 법정연설의 우월적 지위를 보기로 한다. 즐기는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식장연설과는 달리, 법정연설은 정치연설과 더불어 판단하는 청중을 대상으로 한다. 그 판단의 대상은 지난 일이거나 닥칠 일인데, 이에 따라 연설이 구분된다. 식장연설은 향유에 목적을 두고, 정치연설은 미래에 대해 숙고하는 사람의 희망이나 단념을, 법정연설은 법관의 엄격함이나 관대함을 노리게 된다(11절). 이 연설의 유형들 중에서도 왜 키케로는 판단하는 청중을 위한 연설, 그 중에서도 법정연설에 더 비중을 두었던 것일까? 그것은 이성적 판단이 즐기는 감성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랬을 때의 법정연설의 상대적 우위는 논거와 논증의 형식에서 찾을 수 있다. 정치연설에서 권유하거나 제지할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논증의 형식은 다음 세 가지이다.

권유하는 사람에게서는 논증의 가능성이 하나뿐이다. “유익하고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 반면에 제지하는 사람은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를 고르게 된다. 다음이 그 첫 번째 가능성이지. “유익하지 않은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다음은 두 번째 가능성이야. “할 수 없는 일은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85절).

하지만 법정연설에서는 논증의 형식이 다양하다. 정치연설처럼 권유하거나 제지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변증적 성질의 문제형식들이 논증과정의 단계별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형법 제87조의 적용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들이 나올 수 있다.

- (1) 갑은 권력을 잡을 욕심으로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는가?
- (2) 갑의 행위는 “내란의 죄”에 해당되는가?
- (3)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면 갑처럼 폭동을 일으켜도 정당한가?

(1)은 동기를 이용한 추정의 형식이다. 일의 발생여부를 가리는 위 물음에 부정의 답이 나오면, 더 이상 논쟁은 계속되지 않는다. 하지만 긍정의 대답이 나올 경우에는 (2)의 정의의 형식이 나온다. (2)에서도 긍정의 답변이 나오면,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 다음에는 행위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을 벌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3)의 속성의 형식이다. 물론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

다. 법의 해석을 이용해서도 시각을 달리하는 주장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규의 애매한 표현을 둘러싸고 무엇이 더 문맥에 맞는지를 해석할 수도 있고, 입법의 연혁이나 취지를 끌어들여서 법규를 해석할 수도 있으며, 특정 법의 조항이 어떤 법에 저촉됨을 들어 법규를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¹⁴⁾

4. 마무리

이상에서 살펴 본 키케로의 교본은 키케로 자신이 아들과의 대화형식을 빌어 수사학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학의 교리문답서로도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 교본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그 중에서도 특수 문제에, 그 중에서도 법정연설에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법정연설의 논증형식에 대한 그의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신뢰성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화술이론을 지향했다는 것을 말한다. 즉, 그는 기본적으로 이성의 수사학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교본의 내용을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우리는 “옹변가의 능력”을 화술이론과 동일시할 수 있다. 이럴 경우의 “문제”는 착상력에 속하게 되고, 연설의 구조는 현대 수사교본의 구성에서 보듯이 착상력 또는 배열력에 속하게 된다. 이런 관점의 정당성은 그가 특수 문제를 다루는 연설을 설명하면서, 사고와 표현을 우선적으로 나누면서도 사고를 더 중시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옹변가의 능력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다루는 착상력과 말을 다루는 표현력으로 나뉘지기 때문이다. 또한 연설의 구조는 말터의 사용 또는 원칙의 설명이라는 점에서는 착상력에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구조의 순서를 고려하면 배열력에도 넣을 수 있다. 연설의 구조를 어느 것에 넣든지 간에, 옹변가의 능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통합적 관점을 지향하게 된다.

하지만 그는 착상력 또는 배열력만을 옹변가의 능력의 전부로 보지 않았다.

14) 이러한 점은 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법의 적용과 해석을 둘러싼 이러한 논쟁은 결국 “사건과 법조문을 언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법수사학 *juristische Rhetorik*”의 임무를 떠올리게 한다(J. Haft 1999: 14).

이 능력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부분이 표현력인 것이다. 앞서서도 말했다시피, 사고와 표현이 “문제”에서도 다뤄졌다는 것은 키케로가 효과적인 표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신뢰성을 얻게 하는 수단의 보조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그는 감정을 자극하는 기법의 하나인 부풀리기를 격정적 증명으로 나타냈었다. 그가 이처럼 이성의 수사학을 지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성적 확신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감성의 수사학을 교본에서 떼어놓지 않은 것은 이성과 감성의 합일을 말하고자 했기 때문이다.¹⁵⁾ 그는 일찍이 생각하는 학문인 철학과 말하는 학문인 수사학이 합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일원론적 사고를 선보인 바 있다. 이 사고에 따르면, 감성을 자극하는 말이 곧 이성적 확신도 노리게 된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기능을 뇌가 맡고, 감성적으로 자극하는 역할을 혀가 맡는다고 했을 때, 우리 몸에서 뇌와 혀가 분리될 수 없듯이, 이성과 감성은 한 뿌리에서 나오게 된다. 키케로는 그러한 분리가 파멸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분리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양태중 (1996): “말터(Topos) 나누기”, 『언어와 언어교육』 11, 83-101.
 양태중 (1998): “문제원칙에 대하여”, 『언어와 언어교육』 13, 87-109.
 양태중 (2002): 『수사학 이야기』, 3판. 부산: 동아대 출판부.
 양태중 (2003): “문제범주의 분류-늘림무늬를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19, 15-34.
 양태중 (2004a): “수사학적 관점에서 본 텍스트의 종류”, 『텍스트 언어학』 16, 1-19.
 양태중 (2004b): “수사학의 생명력”, 『수사학』 창간호 125-148.
 양태중 (2004c): “수사학의 오늘과 내일”, 『독일어문학』 27, 337-361.
 키케로 (2004): 『화술의 법칙』, 양태중 옮김. 서울: 유로서적.
 플랫폼, 하인리히 F. (2002): 『수사학과 텍스트 분석』, 서울: 동인.

15) 바로 여기에 수사학의 생명력이 있다. 수사학은 이성을 통하여 알리고, 감성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기능을 한다. 보다 자세한 것은 양태중 2004b 참고.

- Aristoteles (1991): *On Rhetoric*, übers.v. G. A. Kennedy. N.Y.: Oxford Uni.
- Blumenberg, Hans (1986): *Wirklichkeiten, in denen wir leben*. Stuttgart: Reclam.
- Cicero, Marcus Tullius (1982): *De partitione oratoria*, in: *Cicero in twenty-eight Volumes IV*, übers.v. H. Rackham, Reprint. London: Heinemann.
- Cicero, Marcus Tullius (1986): *De oratore*, übers.v. H. Merklin, 2. Aufl. Stuttgart: Reclam.
- Cicero, Marcus Tullius (1988): *Orator*, übers.v. B. Kytzler, 3. Aufl. München: Artemis.
- Cicero, Marcus Tullius (1994): *Rhetorik in Frage und Antwort*, hrsg., übers. u. erl. v. Karl und Gertrud Bayer, München: Artemis und Winkler.
- Haft, Fritjof (1999): *Juristische Rhetorik*, 6., Aufl. München: Alber.
- Lausberg, Heinrich (1973): *Handbuch der literarischen Rhetorik*, 2. Aufl. München: Hueber
- Ueding, Gert/Bernd Steinbrink (1986): *Grundriß der Rhetorik*. Stuttgart: Metzler
- Oesterreich, P. L. (2002): *Homo rhetoricus interior*, *Rhetorik* 21, 37-48.
- Plett, Heinrich F. (2000): *Systematische Rhetorik*. München: Fink.
- Quintilianus, Marcus Fabius (1988): *Ausbildung des Redners*, 2 Teile, übers.v. H. Rahn. 2. Aufl. Darmstadt: Wiss. Buchges.
- Rahn, Helmut (1973): Cicero und die Rhetorik, in: *Ciceros literarische Leistung*, hrsg.v. B. Kytzler, Darmstadt: Wiss. Buchges., 86-110.
- Schweinfurth-Walla, Sigrid (1986): *Studien zu den rhetorischen Überzeugungsmitteln bei Cicero und Aristoteles*. Tübingen: Narr.

Zusammenfassung

Eine Untersuchung über Ciceros *Partitiones oratoriae*

Yang, Tae-zong(Dong-A Univ.)

Der Rhetorik Ciceros wird auch im heutigen Rhetorik-Boom als innerhalb der westlichen Tradition am einflussreichsten angesehen. Deshalb versucht diese Arbeit, anhand seines Buches *Partitiones Oratoriae* die Grundkonzepte seines Denkens heraus

zu arbeiten.

Das Hauptthema dieses Buches ist die Redelehre, die aus VIS ORATORIS, ORATIO und QUAESTIO besteht. Jeder Hauptteil hat seinerseits Subsektionen. Vis Oratoris wird z.B. in weitere fünf Bereiche eingeteilt: INVENTIO, CONLOCATIO, ELOCUTIO, ACTIO und MEMORIA. Oratio in vier: PRINCIPIUM, NARRATIO, ARGUMENTATIO und PERORATIO; die Quaestio in zwei: CONSULTATIO und CAUSA.

Unser Ausgangspunkt ist die erste Klassifikation der Redelehre. Unsere Untersuchung hat gezeigt, dass die Quaestio nicht nur mit der Vis Oratoris sondern auch mit der Oratio Gemeinsamkeiten hat. "Der Gedanke"(RES) der Consultatio ist ein Teil von Inventio und Conlocatio im Bereich der Vis Oratoris, und ein Teil von Narratio und Peroratio im Bereich der Oratio. Das gilt auch für die Causa, einen anderen Teil der Quaestio. Daraus ergibt sich die Möglichkeit der Integration der Quaestio z.B. in Vis, weil der Ausdruck (VERBA) sicherlich zur Elocutio gehört - bei der Darstellung der Quaestio wie bei der der Vis geht Cicero von der Unterscheidung res-verba aus. Aus solch reduktionistischer Sicht können wir auch die Oratio in die Vis integrieren, weil die Funktionen der Redeteile der Stoff der Inventio sind. Die Inventio sucht nach Wegen, sich vertrauenswürdig zu machen und Emotionen zu wecken. Der erste Weg dahin ist die Funktion von Narratio und Argumentatio, und der zweite Weg die von Principium und Peroratio.

Es gibt weitere interessante Punkte: die Ausweichung der Memoria von der üblichen Produktionsstufe der Rede, die Gewichtsverlagerung der Oratio auf die Narratio, die Hervorhebung der gerichtlichen Rede wegen ihres dialektischen Zuges, die Bevorzugung der Vertrauenswürdigkeit (der Emotionen gegenüber) usw. Es bleibt natürlich strittig, welche Sichtweise zwischen den Polen Integration und der Ausdifferenzierung angemessen ist. Trotzdem ist klar, dass Cicero großen Wert nicht auf VERBA, sondern auf RES gelegt hat. Für ihn ist vor allem Vertrauenswürdigkeit am wichtigsten.

[검색어] 키케로, 수사학, 웅변가의 능력, 연설, 문제
Cicero, Rhetorik, Vis oratoris, Oratio, Quaestio

양태종

604-714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동아대학교 인문대학 유럽어문학부
tzyang@daunet.donga.ac.kr

논문 접수일: 2004. 10. 19

논문 심사일: 2004. 11. 26